동국대 3천 청년불자 발원…교내 전법 확대

건학위 최고 · 상임위 회의 개최
3년 성과 및 향후 계획들 점검
교내 '불교학생연합' 창립 계획
동불, 단과대 동아리 등 연합체
서울 · 경주 3천 불자 양성 목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 불교동아리 '가람수호' 창립법회에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동아리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립 동국대가 대학생불자 3000명 양성을 발원했다. 이는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창립 등 교내 전법을 적극 활성화겠다는 의지로 확인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4월 29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고·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건학위원회 출범 3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회의에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을 비롯해 교육위원장 경우 스님(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상임최고위원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 윤재웅 동국대 총장,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과 산하기관 및 학교장들이 참석했다.

건학위원회는 회의에서 2021년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3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계획들을 점검·확정했다. '건학이념 구현을 통한 제2 건학'을 선언하고 3년 동안 이뤄져 온 건학위원회의 활동은 동국대 전반을 변화시켰다. 건학위 고문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천명한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이루기 위해 동국건학장학·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제도를 신설했으며, 처음으로 교내 취업박람회를 열어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확정된 건학위원회 올해 추진 역점 사업은 '대학생 전법'에 방점을 뒀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 등을 통한 교내 전법 활성화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기존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불'과 창립 추진 중인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대학원 불교장학생·소모임, 유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불교학생연합'을 출범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6일 'WISE대학생전법단'을 출범한 WISE캠퍼스도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불교학생회, 불교도연합회(불교계 장학생, 불교추천전형, 유학생 불자 등) 등 연합체로 구성된다.

이 같은 전법조직 출범을 통해 건학위원회는 서울캠퍼스 2000명, WISE캠퍼스 1000명 총 3000여 대학생불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국건학장학·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내리사랑장학을 통해 건학이념 선순환 장학 사업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 불자 신행활동 모델 확립을 추진한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회가 출범하고 전법, 장학, 취업 등의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창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계종립 동국대가 대학생 전법 중심 도량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캠퍼스 2000명, WISE캠퍼스 1000명 총 3000명의 대학생 불자 양성을 발원한다"면서 "가장 먼저 올해 연등회 제등행렬에는 2000여 동국인의 참여토록 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추진하려 한 '영캠프'도 개최하려 한다. 동국대 118년 건학정신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 '봇물'

불교 · 사범 · 공과 · 경영대 연이어

3000여 대학생불자 양성을 발원한 동국대에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이 이어지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교내 전법조직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30일 △사범대학 불교동아리 '불사대' △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붓다붓' △공과대학 불교동아리 '공양미 300석'과 5월 1일 불교대학 불교동아리 '가람수호' 창립법회를 정각원에서 봉행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에는 현재까지 7개 단과대학에 불교동아리 창립이 이뤄졌다.

사범대학 불교동아리 '불사대'는 85명의 회원으로 창립됐으며, 초대 회장은 이현나(국어교육과) 학생이 맡았다. 지도법사에는 반야 스님(동국대 일반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 지도교수에는 동국대 국어교육과 조성윤·전한성 교수, 역사교육과 윤종필 교수가 위촉됐다.

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붓다붓'은 학부·대학원생 112명이 회원으로 창립됐으며, 최윤정 학생(경영학과2)이 초대회장을 맡았다. 지도법사는 무진 스님(일반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이, 지도교수는 정욱(경영학과)·임성묵(경영학과)·박청규(회계학과)·전승우(경영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공과대학 불교동아리 '공양미 300석'은 174명의 회원으로 창립됐으며, 이승협(산업시스템공학과3) 학생이 초대회장을 맡았다. 지도법사에는 무설 스님(불교학부)이, 지도교수에는 황승훈(전자전기공학부)·오제민(에너지신소재공학과)·최민재(화공생물공학과)·한민우(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불교대학 불교동아리 '가람수호'는 200여 명의 회원으로 창립됐으며, 최지원(불교학부3) 학생이 초대회장을 맡았다. 지도법사에는 불교학부 교수 정완 스님이, 지도교수에는 황순일·김경래(이상 불교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5월 1일 불교대학 가람수호 창립법회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43일 동안 1167㎞ 인도순례를 다녀온 뒤 일성은 대학생 전법이었다. 나 역시 이사장으로 서울·WISE캠퍼스에 3000명의 불자 양성을 발원했다. 이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지명 대선사 원적에 범어사 계곡도 목이 멘다"

수행 사표 원성당 지명 스님
금정총림장으로 영결식 엄수
스님 · 신도 전국서 추모 발길
"대선사 유지 이어 정진할 것"


범어사 대중이 원성당 지명 대선사의 영정과 법구를 연화대로 이운하는 모습. 대중스님들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다.

"남산(南山)에 구름이 일어나니 북산(北山)에 비가 내린다. 청산(靑山)은 검을 걸어두지 않는다네."

수행자의 사표 원성당 지명 대선사가 임종게를 남기고 법랍 63년, 세수 92세로 입적했다.

범어사는 5월 2일 경내 보제루에서 '원성당 지명 대선사 영결식'을 봉행했다. 영결식은 금정총림장으로 엄수됐으며, 방장 정여 대종사,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전국에서 찾아온 스님과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 범어사 신행단체 대표 및 안국선원 신도 등 대중이 운집해 스님의 마지막을 애도했다.

스님의 법구는 영결식장인 보제루 앞에서 율원, 설법전, 사천왕문, 일주문을 지나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오색 만장이 앞서간 길을 따라 긴 행렬이 줄을 이었고, 대중의 애도 속에 스님의 법구는 연화대에 안치됐다. 거화의 식이 진행되자 대중은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라고 소리쳤고, 스님의 법구는 금정산 깊은 녹음 속으로 운무가 되어 흩어졌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대선사의 원적 소식에 범어사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도 못내 아쉬운 듯 목이 멘 듯하다. 대선사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라며 "속히 사바에 오셔서 고통 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바란다"고 애도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우리 대중은 여전히 대선사의 발걸음이 필요하고,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이 많다"며 "바라옵건대 부디 속환사바하시어 큰 가르침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일오 스님은 "훌륭하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저희 후학들도 게으르지 않고 매사에 수행자의 형형한 눈빛으로 스스로를 깨우칠 것"이라고 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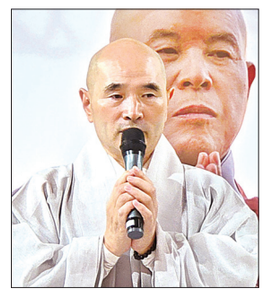
문도를 대표해 수불 스님은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정진과 수행으로 사표가 되어주신 은사스님께 존경을 전하며 각지에서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원성당 지명 대선사는 1961년 백운 대강백의 소개로 출가해 나옹 능가 스님의 상좌로 수행정진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염원을 세우고 부산 가야동에 안국사를 창건했다. 2010년부터 경주 토굴에서 보임(保任)하는 등 수년을 유마거사의 미질(微疾)로 두타행을 하다 입적 전날 목욕재계하고 맏상좌인 수불 스님에게 임종게를 남기고 입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상월결사 제3대 이사장에 호산 스님

4월 29일 봉은사 구생원서 임시 이사회 · 총회

사단법인 상월결사 제3대 이사장에 호산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상월결사는 4월 29일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제3차 임시 이사회 및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4월 19일 제2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임 이사장 선출이 논의됐으며,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선출 직후 호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상월결사 활동의 핵심은 초대 이사장이셨던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지를 잘 받들어 전법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소임을 맡은 이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상월결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월결사는 이사들 뿐만 아니라 전 종도들이 함께 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을 비롯해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 현덕 스님(통도사 주지),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허운 스님(관음사 주지), 담화 스님(조계사 주지), 삼조 스님(전 불교신문사 사장), 지현 스님(청량사 회주), 해량 스님(상원사 주지), 도림 스님(장안사 주지), 정충래 전 동국대 이사, 최진식 심팩 대표이사,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圓成堂 志明 大禪師 영결 다비식에 대한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은사 스님이신 원성당 지명 대종사의 영결식 및 다비식을
불기 2568년 5월 2일(음력 3월 24일) 부산 범어사에서 총림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대중 스님들과 제방 스님들, 은사 스님의 영전에 조화를 보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자들은 은사 스님의 큰 가르침과 유지를 가슴 깊이 새기어 수행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불기 2568(2024)년 5월 2일(음력 3월 24일)

문도대표 **수불** 합장